

음식점업, 택배업 등에 대한 요건 개선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

1. 관련 기사

- ☐ 4.24.(목) 이데일리, “비숙련 외국인 ‘택배 분류·식당 서빙’ 취업 허용 ... 서비스업 인력난 숨통” 기사 관련

2. 설명 내용

- ☐ 현재 음식점, 호텔·콘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,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·평가를 진행 중임
- ☐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음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	책임자	과 장	노경민 (044-202-7755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은 (044-202-7735)